

갱신 보험료 폭탄

계륜된 실손의료보험

— WRITER —



양세정 보험컨설턴트
네이버 「철학(哲學) 있는 보험인이 그림다」 운영자
세무연합보험대리점 이사

전환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그것이 딜레마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무려 3,900만 명. 가입연령 범위를 벗어난 고령층이나 가입이 거절된 유병력자 등을 제외하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통제가 어려운 비급여 과잉진료(특히 도수치료, 다초점 백내장수술, 비타민&영양주사, MD크림, 하지정맥류, 비벨브 재건술, 하이푸, 맘모툼,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등)에 따른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점이다. 급기야 15개 보험사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가입자 중 장년층은 갱신보험료 폭탄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과잉진료가 해소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갱신보험료 폭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애초에 실손보험이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탓에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노년기 소득감소 또는 갱신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재 판매 중인 실손 상품으로 변경하는 전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례 1

2007년 7월 당시 58세였던 주부 A씨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월납입 보험료 38,557원에, 5년 갱신 조건이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2022년, 73세가 된 A씨는 갱신보험료 324,884원을 통지받고 본인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 2

B씨는 1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 지출이 아깝게 생각되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으나, 한 달 후 암 진단을 받게 된다. 기존 보험을 유지했다면 의료비 100%를 보장받았을 텐데, 급여 80%/비급여 70%만 지급받게 되자 선택은 보험전환을 후회했다.



내 실손의료보험은 몇 세대?

구분	판매시기	특징	갱신주기	재가입주기
1세대	~2009년 7월	보험사마다 상품 다름 입/통원 100%(급여+비급여)/가입금액 한도	3~5년	없음
2세대	2009년 8월 ~2017년 3월	입원 90%(급여+비급여) 보장 통원 30만 원 한도(예: 25만 원+5만 원 한도) 외래 1~2만 원/처방 8천원 공제	3년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는 1년)	없음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는 15년)
3세대	2017년 4월 ~2021년 6월	기본형 입/통원 공히 급여 90% + 비급여 80% 통원 ① 30만 원 한도(예: 25만 원+5만 원 한도) ② 최저자기부담: 외래 1~2만 원/처방 8천 원 특약 3대 비급여 70%(최저자기부담 2만 원)	1년	15년
4세대	2021년 7월~	기본형 급여 80% 특약 비급여 70% 특약 3대 비급여 70%(최저자기부담 3만 원) 통원 : 급여/비급여 각 20만 원 한도 ① 최저자기부담 1~2만 원 ② 최저자기부담 3만 원 * 비급여특약 :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1년	5년

※ 1세대 실손 : 상해의료비 1천만 원 한도/질병입원의료비 3천만 원 한도/질병통원의료비 10만 원 한도
※ 3대 비급여: ①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중식치료, ②비급여 주사료, ③비급여 MRI/MRA

갱신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환'을 고려하자!

필자는 갱신보험료 상승 부담을 안고 있는 1~2세대 실손보험의 4세대로의 전환이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필연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1세대 실손보험 중 만기가 80세거나, 치매 및 디스크/신경계질환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라면 전환을 고려해 봐야 한다. 보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 1~2세대에서 탈출하는 가입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1~2세대에 남아 있는 이들의 납입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보험 유지자 상당수가 '지급받을 보험금 > 지출할 보험료'일 것으로 기대하는 유병력자다 보니, '보험사 손해율 상승 → 갱신보험료 상승'의 악순환의 반복은 자명하다. 따라서 4세대 전환 시 월 보험료 5만 원 이상을 줄일 수 있는 연령층이라면 전환을 통해 절감된 비용을 저축함으로써, 전환 후 축소된 보장 의료비를 충당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 1~2세대의 100% 또는 90% 보장에서 4세대의 급여

80%/비급여 70% 보장으로 축소된다고 하여 위험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증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직접 치료비의 대부분은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경제적 타격은 충분히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3세대 보장 조건이 4세대보다 유리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 자신의 상태를 체크한 후 유지와 전환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한다. 보험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위험을 헷지(hedge)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주머니돈으로 해결 가능한 작은 손해까지 보험으로 해결하려면 당연히 지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보험료 지출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인지하고, 보험료 지출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